



청년 정치인과 한국 유권자의 정치 신뢰

정다빈

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 정치인의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유권자일수록 정치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며,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정치 신뢰 회복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청년 정치인이 유권자의 정치 신뢰 제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만연한 불신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치 신뢰, 국회 불신, 청년 정치인, 유권자 인식, 정치개혁

논문접수일 May 19, 2025

논문수정일 June 16, 2025

제재확정일 June 20, 2025

Corresponding Author

정다빈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aaabic@naver.com

I. 서론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2년마다 국제의회 내 청년참여보고서(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이하 청년참여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의 의회 내 청년의원 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IPU 회원국인 한국의 국회도 포함되며, 한국은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3년 청년 참여보고서에 따르면, IPU 회원국 청년의원 평균 비율은 30세 미만 2.8%, 40세 미만 18.8%, 45세 미만 32.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30세 미만 0.0%, 40세 미만 3.7% 그리고 45세 미만 7.4%로 IPU 회원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국가별 순위도 각각 111위 중 111위, 146위 중 142위, 147위 중 145위로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14명의 30대 청년들이 국회로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에 발행될 청년참여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화 이후 2030세대인 청년의원이 단 3명에 불과했던 20대 국회를 기점으로 원내 청년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20대인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재선에 성공하여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40대 미만의 청년의원이 전체의 4.67%를 차지하였고 이는 20대 국회의 1.0%에 비해 약 4.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중장년층의 과대대표가 뚜렷했던 정치 구조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국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준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인식의 변화를 주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을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청년들이 제도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례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정다빈, 이재목, 2018). 한국 역시 국제적

인 흐름의 영향을 받아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와 기대 또한 확대되고 있다(정다빈, 이재묵, 2020). 즉, 유권자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기성정치인들과는 다른 방향의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갖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정치인들은 한국 정치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정치적 불신 및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년 정치인의 증가와 청년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 정치인이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청년 정치인이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정치 신뢰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대의제와 정치발전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긍정적 기대감과 그 실현 여부를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또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은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 신뢰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한국 유권자들의 국회 신뢰도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행정부나 사법부 등 다른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이현우, 2006; 최준영, 2009).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국가별 정치 신뢰를 조사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결과에 따르면 ‘의회를 신뢰한다’는 한국 유권자들의 응답 비율은 1990년에 33.9%에서 2005년 26.2%, 2018년에는 20.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회가 유권자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신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반복되는 파행과 정파적 대립 및 공전 등의 문제로 유권자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유성진, 2009). 이 같은 맥락에서 청년 정치인의 등장은 국회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젊고 새로운 인물의 정치는 기성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청년 정치인이 원내에 다수 진입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이 유권자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청년 정치인이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 내 청년 정치인의 변화 추이와 정치 신뢰의 변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국회를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I. 선행연구검토

1. 유권자의 정치 신뢰

신뢰(trust)는 감시나 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Mayer et al., 1995: 712),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정의한다(Rousseau et al., 1998: 395). 즉, 신뢰란 어떠한 행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박찬웅, 1999: 39). 요컨대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리라는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상태이며(류태건, 2012: 277), 신뢰의 대상은 개인이나 집단, 제도 또는 규범 등 다양할 수 있다.

정치 신뢰(potitical trust)는 이러한 신뢰가 정치 영역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정치과정에서 주요한 주체인 정치인,

정당, 기관, 집단 등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만약 신뢰의 대상이 국회인 경우에는 의원의 역할과 의정 활동, 국회의 구성 및 대표성 등에 근거하여 신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정치 신뢰는 대의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고, 대표기관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와 협력의 기반으로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의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lmond & Verba, 1965; Gamson, 1968).

이처럼 정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적 태도, 그리고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은 유권자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정치 신뢰에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미국인들의 정치 신뢰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해더링턴(Hetherington, 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력과 소득수준, 연령 그리고 인종에 따라 정치 신뢰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요인인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정치 신뢰의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이거나 소득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았고(가상준, 2007),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박희봉 외, 2013).

두 번째 요인은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정당일체감 등 정치적 태도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지식 및 관심, 정치효능감, 정당일체감 그리고 이념 등의 요인들이 유권자의 정치참여행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정치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0; 이곤수, 정한울, 2013; 조인희 외, 2008 등).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최준영(2009)은 정부 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위, 정치문화 등이 정치 신뢰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들 가운데에서 정당일체감, 정치 관심 등이 정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조인희 외, 200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더해 정회옥과 그의 동료들(2015)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이 높고,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동적 요인으로서 정책과 이슈에 대한 태도가 있다. 정치 신뢰는 가변적인 것으로 유권자의 신뢰가 결정되는 그 시점의 정책이나 이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박희봉 외, 2013; Uslaner, 2002 등). 대표적으로 영국을 대상으로 한 맥라렌(McLaren, 2012)은 이민에 대한 우려가 영국 유권자들의 정치 신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정치 신뢰가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민자의 법적 지위와 불법 체류자의 문제 등 이민과 관련된 이슈가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反)이민적 성향과 정치 신뢰는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정회옥 외, 2015).

이처럼 정치 신뢰에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정치 신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적 태도, 그리고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 신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환경과 이슈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국회에 대한 정치 신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슈에 대한 태도에 주목한다. 이에 특히 청년 정치인을 핵심 이슈로 설정하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정치인으로서 청년

청년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성인(adulthood)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보호를 받거나 보호가 필요로 인식된다(Collin, 2015). 즉, 청년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청년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성인과는 구별되는 법적·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규정되고 있다(Ansell, 2005). 그러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는 국가별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과 동시에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혜영, 정태일, 2019). 한국에서도 법과 법률안, 조례, 정당의 당헌·당규 등

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2030세대, 즉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정다빈, 이재묵, 2018; 최태욱, 2017). 특히 정다빈과 이재묵(2020)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다수가 정치인으로서 '청년'을 대략 30대까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또한 선행연구들의 기준을 따르며,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2030세대로 정의한다. 더 나아가 한국 정치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함께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민준기, 1996), 이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청년은 중앙의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왔다. 특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피선거권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으로써 피선거권의 연령이 하향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청년 대통령의 등장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 피선거권¹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행연구들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본 연구도 청년 정치인의 범주를 2030세대인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였다.

청년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온 소수자이지만, 근래에 이르러 정치적인 주체로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청년 정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 또는 의회 내 정치 대표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윤혜영, 정태일, 2019; 이윤주, 2019; 정다빈, 이재묵, 2018; 최태욱, 2017). 대표적으로 정다빈과 이재묵(2019)은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청년 세대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고자 IPU 회원국을 대상으로 청년 대표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고, 비례제와 정렬한 정치문화가 청년의 정치 대표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정다빈과 이재묵(2020)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효능감과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 이념 등 다양한 변수들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국 정치의 진일보를 위한 선택으로써 청년 대표성의 확대를 통해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 분석하였다(정다빈, 이재묵, 202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 내에서 확대될 경우 유권자들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게 되고, 이는 만연한 정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준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슈가 일정 수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정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과적 흐름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신뢰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가운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슈를 접하게 된다면($t-1$) 유권자의 신뢰 수준($t+1$)을 결정하는 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t)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며, 정치 신뢰의 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I. 한국 정치 신뢰와 청년 정치인의 현황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는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이

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²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점대의 점수를 유지하며 아시아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우수성 및 성숙도를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장선화, 2020).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성숙과는 별개로, 한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조사 결과³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유권자의 정치 신뢰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 정치(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

단위: %

연도 (n)	1990 (1,251)	1996 (1,249)	2001 (1,200)	2005 (1,200)	2010 (1,200)	2018 (1,245)	평균
매우 신뢰	7.4	3.3	1.3	1.4	3.2	2.2	3.1
신뢰	26.5	27.7	8.9	24.8	22.3	18.5	21.5
불신	42.8	51.6	47.2	50.5	52.9	52.3	49.6
매우 불신	22.4	16.9	37.2	23.3	21.2	27.0	24.7
모름 or 무응답	1.0	0.5	5.3	0.1	0.5	0.0	1.1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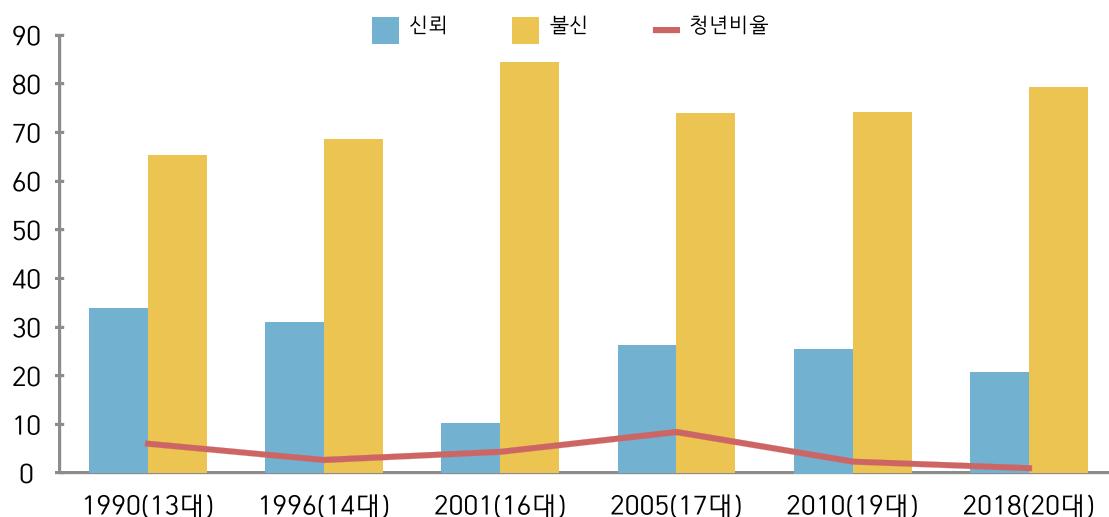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한국의 정치신뢰와 청년 정치인 현황

자료: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 및 각 국회의원선거 총람 참조

²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의 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시민 자유(Civil liberties)’, ‘정부의 기능(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로 분류된 다섯 개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종합 점수에 따라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6점 초과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4점 초과 6점 이하는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된다.

한편 정치 신뢰가 측정된 시점의 국회 내 청년 정치인의 구성 현황과 정치 신뢰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출과 정치 신뢰 간 관계를 기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치 신뢰에 대한 응답을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신뢰(매우 신뢰+신뢰)와 불신(매우 불신+불신)으로 구분하였으며, 청년 정치인의 현황은 세계가치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에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청년의 비율⁴로 측정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민주화 이후 국회 내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16대 총선(2000년)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는 청년(20·30대) 비율이 약 6%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8.4%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 국회에서는 약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일시적 증가 요인은 당시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젊은 피 수혈론” 덕분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각 정당들은 당시의 청년 세대였던 86세대⁵를 제도권으로 영입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유권자들도 청년 정치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정치 신뢰의 추이 또한 청년 정치인의 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정치 신뢰가 꾸준히 하락하며 불신의 정도가 증가하였지만, 2001년 16대 총선을 기점으로 2005년에는 정치 신뢰가 확연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대 총선부터 다시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2005년 이후부터 정치 신뢰도 다시 하락하며 불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치 신뢰의 등락은 국회 내 청년 정치인의 비율의 증감 추세와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출이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청년 정치인이 정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IV. 한국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대한 분석

한국의 유권자들의 정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연구 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알앤씨(Global R&C)에 의뢰하여 실시한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정

³ 세계가치조사에서는 정치 신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I am going to name a number of organizations. For each one, could you tell me how much confidence you have in them: is it a great deal of confidence, quite a lot of confidence, not very much confidence or none at all? Parliament

⁴ 한국에서 세계가치조사 설문은 대체로 4월 정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연도에 치른 선거를 제외하고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의 선거인 13대(1988년), 14대(1992년), 16대(2000년), 17대(2004년), 18대(2008년), 20대(2016)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당선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F-1. 각 선거의 연령별 당선자 현황

단위: 명(%)

총선	의석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3대(1988)	299(100.0)	1(0.3)	17(5.7)	111(37.1)	138(46.2)	32(10.7)
14대(1992)	299(100.0)	0(0.0)	8(2.7)	70(23.4)	179(59.9)	42(14.0)
16대(2000)	273(100.0)	0(0.0)	13(4.8)	65(23.8)	105(38.5)	89(32.6)
17대(2004)	299(100.0)	0(0.0)	23(7.7)	106(35.5)	121(40.5)	49(16.4)
18대(2008)	299(100.0)	0(0.0)	7(2.3)	88(29.4)	142(47.5)	62(20.7)
20대(2016)	300(100.0)	1(0.3)	2(0.7)	50(16.7)	161(53.7)	86(28.7)

⁵ 86세대는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30대, 80년대 학번, 그리고 1960년대 출신으로 과거 386세대라고 불리었으며, 현재는 86세대 혹은 586세대로 통칭하고 있다.

치정보 이용행태 및 정치의식 온라인 설문조사”자료⁶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전국의 만 19세 이상인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의 종속변수는 ‘정치 신뢰’이며, “귀하는 다음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을 모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별로 신뢰 안함=1, 다소 신뢰=2 매우 신뢰=3으로 코딩하였고, 4개의 기관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총합하여 정치 신뢰라는 통합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에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청년 정치인에 유권자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나 정치권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로써 정치효능감, 여야지지, 정치 관심, 정치 만족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정치효능감⁷ 변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관련 문항들을 대상으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1.0 이상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통해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문항 내용에 따라 각각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 효능감은 “나는 평소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정치와 관련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한다”, “나의 투표는 후보자의 당선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을 추출하고 각 질문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외적 효능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라는 문항을 추출하고 변수 간 방향성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역코딩을 통해 변수의 방향을 통일한 뒤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 관심과 정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으며,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은 무당파를 제외하고 여당과 야당으로 이분화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여당(더불어민주당)=1, 야당(미래통합당+민생정당+국민의당+정의당+기타정당)=2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성=0, 여성=1로 코딩하였고, 연령은 19세를 포함한 20대=2, 30대=3, 40대=4, 50대=5, 60대 이상=6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념은 1부터 11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이며 1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임을 나타낸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전문대(2~3년제) 졸업=3, 대학(4년제) 졸업=4,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5로 구분하였고 소득 수준은 ‘소득 없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씩 총 12점 척도로 분류하여 조작화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치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OLS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⁶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설문조사는 2020년에 진행되었다는 점에 따라 연구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존에 실시된 설문조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질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라고 사료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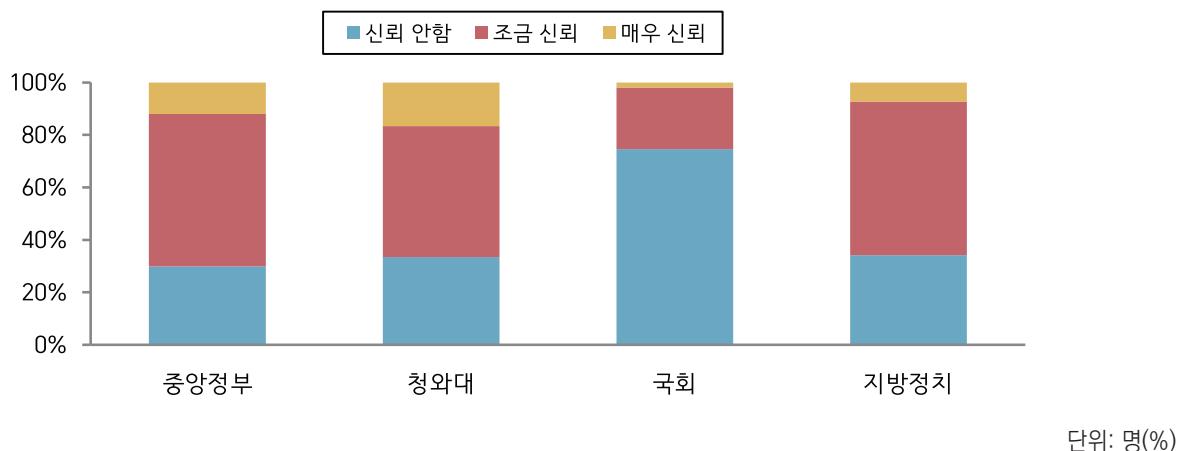
⁷ 정치 효능감은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구분된다. 내적 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고, 외적 효능감은 본인의 요구에 정치기관이나 정치인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의미한다(Miller et al., 1980).

표 2. 변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정치 신뢰 (국회+중앙정부+청와대+지방정치)	3,000	1.6644	0.4709	1	3
중앙정부 신뢰	3,000	1.8213	0.6231	1	3
청와대 신뢰	3,000	1.8317	0.6881	1	3
국회 신뢰	3,000	1.2740	0.4882	1	3
지방자치정부 신뢰	3,000	1.7307	0.5850	1	3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	2,931	3.7048	0.9181	1	5
여야정당지지	2,321	1.3606	0.4803	1	2
내적 효능감	2,886	3.1265	0.7117	1	5
외적 효능감	2,927	2.9669	0.9698	1	5
정치관심	3,000	3.5430	0.9535	1	5
정치만족	2,962	2.1486	1.0455	1	5
성별	3,000	1.5000	0.5000	1	2
연령	3,000	4.0000	1.4145	2	6
이념	2,886	5.8694	2.2223	1	11
교육수준	3,000	3.6310	0.9171	1	5
소득수준	3,000	6.4047	2.5437	1	12

1. 기술 분석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국회를 포함한 정치기관별 신뢰 수준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 2>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는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치에 대해서 ‘조금 신뢰한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상대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지방정치
매우 신뢰	362(12.1)	500(16.7)	59(2.0)	218(7.3)
조금 신뢰	1,740(58.0)	1,495(49.8)	704(23.5)	1,756(58.5)
신뢰 안함	898(29.9)	1,005(33.5)	2,237(74.6)	1,026(34.2)
총계	3,000(100.0)	3,000(100.0)	3,000(100.0)	3,000(100.0)

그림 2. 한국 정치기관별 응답자의 신뢰 현황

표 3.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과 정치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청년정치인 필요	정치신뢰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지방정치
청년정치인 필요	1	-	-	-	-
정치신뢰	0.1374***	1	-	-	-
중앙정부	0.1422***	0.8792***	1	-	-
청와대	0.1458***	0.8235***	0.6889***	1	-
국회	-0.0155	0.5763***	0.3178***	0.2505***	1
지방정치	0.1310***	0.8340***	0.6903***	0.5326***	0.3881***

*** $p<0.01$, ** $p<0.05$, * $p<0.1$

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 수준의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5%에 달했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이현우, 2008; 최준영, 2009)의 주장과 같이 한국 정치 불신의 핵심은 국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청와대, 그리고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 분포는 ‘조금 신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포의 형태(조금 신뢰 > 신뢰 안함 > 매우 신뢰)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국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과 동시에 신뢰 안함, 조금 신뢰, 매우 신뢰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회가 다른 정치기관들과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낮은 신뢰 기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유권자가 신뢰를 형성함에 있어 주요 독립변수인 청년 정치인의 인식의 영향이 여타 정치기관들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다음으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의 지표로써 청년 정치인 확대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정치 신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과 같이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회를 제외한 모든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치 신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청년 정치인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치 신뢰와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신뢰는 예외적으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다른 정치기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 중에서도 국회 신뢰는 다른 정치 신뢰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정치 신뢰와 중앙정부(0.8792), 청와대(0.8235), 지방정치(0.8340)는 0.8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면, 국회는 정치 신뢰 및 다른 정치기관들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치 신뢰와 중앙정부 신뢰, 청와대 신뢰, 지방정치 신뢰와 국회 신뢰는 일정 수준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표하는 유권자들이 다수였던 반면 국회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 불신은 절대적으로 국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 불신 문제의 핵심은 국회에 있으며, 정치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 중심의 신뢰 해소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본다.

2. 회귀분석 결과

위와 같은 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치 신뢰, 국회 신뢰, 중앙정부 신뢰, 청와대 신뢰, 지방정치 신뢰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

표 4.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 회귀분석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정치신뢰	중앙정부	청와대	지방정치	국회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 인식	0.2707*** (0.0098)	0.0407*** (0.0135)	0.0415*** (0.0139)	0.0436*** (0.0137)	-0.0173 (0.0118)
내적 효능감	0.0703*** (0.0145)	0.0729*** (0.0202)	0.0625*** (0.0207)	0.0604*** (0.0204)	0.0854*** (0.0113)
외적 효능감	0.1009*** (0.0093)	0.1469*** (0.0129)	0.1555*** (0.0132)	0.0838*** (0.0129)	0.0176 (0.2545)
여야 지지	-0.1603*** (0.0209)	-0.1939*** (0.0291)	-0.3707*** (0.0298)	-0.1024*** (0.0294)	0.0259 (0.0255)
정치 관심	0.0020 (0.0111)	0.0229 (0.0155)	0.0152 (0.0158)	0.0060 (0.0156)	-0.0361*** (0.0135)
정치 만족	0.1233*** (0.0086)	0.1189*** (0.0119)	0.1156*** (0.0121)	0.1807*** (0.0119)	0.1500*** (0.0104)
성별	-0.0149 (0.0169)	-0.0432* (0.0234)	-0.0047 (0.0239)	-0.0371 (0.0237)	0.0251 (0.0205)
연령	0.0141** (0.0061)	0.0145* (0.0085)	0.0371*** (0.0087)	0.0197** (0.0086)	-0.0149** (0.0074)
이념	-0.0201*** (0.0041)	-0.0258*** (0.0057)	-0.0589** (0.0058)	-0.0133** (0.0058)	0.0178** (0.0050)
교육 수준	-0.0265*** (0.0097)	-0.0455*** (0.0135)	-0.0238* (0.0138)	-0.0214 (0.0136)	-0.0150 (0.0118)
소득수준	-0.0076** (0.0035)	-0.0052 (0.0048)	-0.0061 (0.0049)	-0.0047 (0.0049)	-0.0144*** (0.0043)
상수	1.2496*** (0.0857)	1.3254*** (0.1189)	1.6101*** (0.1216)	1.2026*** (0.1202)	0.8603*** (0.1041)
N	2,209	2,209	2,209	2,209	2,209
R-squared	0.3064	0.2482	0.3689	0.1298	0.1243
Adj. R ²	0.3030	0.2444	0.3658	0.1255	0.1199

*** $p<0.01$, ** $p<0.05$, * $p<0.1$

에 따라 총 5개로 구성된 회귀모델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먼저 각 정치기관의 신뢰 평균을 통하여 조작화한 정치 신뢰 모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정치효능감, 여당 지지, 정치 만족과 함께 연령, 이념,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정책 및 이슈 요인으로 청년 정치인이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활용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정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가 청년 정치인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수록 정치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청년 정치인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정치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정치효능감과 정치 만족은 정치 신뢰에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내적 효능감($p<0.01$) 또는 외적 효능감($p<0.01$)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만족($p<0.01$)이 클수록 정치 신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야지지의 경우에는 부(-)의 방향을 가지며 여당을 지지할수록 정치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외에 통제변수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 신뢰의 수준은 증가하였고($p<0.05$), 이념, 교육 수준은 및 소득수준은 회귀계수의 값이 음(-)인 것으로 나타나며 진보적일 성향일수록($p<0.01$),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p<0.01$), 소득 수준($p<0.05$)이 낮을수록 정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신뢰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틀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설명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존 선행연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변수가 유의미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치 신뢰의 정의에 따라 청년 정치인 확대라는 유권자의 기대감이 정치기관 및 정치과정에 진출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 및 긍정적인 인식으로 투영되어 유권자의 정치 신뢰를 견인하게 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 모델은 정치 신뢰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청년 정치인 확대 인식($p<0.01$), 내적 효능감($p<0.01$) 및 외적 효능감 ($p<0.01$), 여당지지($p<0.01$), 정치 만족($p<0.01$), 연령($p<0.1$), 이념($p<0.01$), 그리고 교육 수준($p<0.01$)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치 신뢰 모델과는 다르게 소득 수준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되지 않았고, 5개의 모델 가운데에 유일하게 성별 변수에서 부(-)의 방향을 나타내며 남성일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p<0.1$). 두 번째, 청와대에 대한 신뢰 모델에서도 청년 정치인 변수($p<0.01$)를 포함하여 동일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방향성도 정치 신뢰 및 중앙정부 신뢰와 유사하였다. 지방정치 신뢰의 경우 역시 청년 정치인 확대 인식($p<0.01$)을 비롯하여 정치효능감, 여당지지, 정치 만족도, 연령, 이념, 소득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정치 신뢰 모델과 유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신뢰와 중앙정부, 청와대 그리고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들에서 동일한 변수들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정치적인 신뢰에는 정치적 태도 요인인 정치효능감, 여당지지, 정치 만족도와 더불어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연령, 이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있어 정치적 태도 요인(정치효능감, 정치 만족도, 여야지지)과 사회경제적 요인(연령, 이념, 교육 수준 등), 그리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청년 정치인의 이슈와 확대가 유권자의 정치 신뢰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 모델에서는 여타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청년 정치인 확대 인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회귀계수의 방향도 부(-)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치인 확대 인식이 국회에 대한 신뢰로는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 신뢰 모델에서는 내적 효능감과 정치 관심, 정치 만족도 그리고 연령, 이념, 소득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내적 효능감과 정치 만족은 다른 모델들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정(+)의 값으로 나타났고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p<0.01$), 정치 만족도가 클수록($p<0.01$) 국회에 대한 신뢰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연령과 이념은 회귀계수의 방향이 여타 모델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추정되어 연령이 낮을수록($p<0.5$), 보수적일수록($p<0.01$)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 외에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부(-)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그리고 국회 신뢰 모델에서 유일하게 정치 관심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성을 갖고 있었으며($p<0.01$), 해당 변수의 방향성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낮을수록 국회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국회가 국민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끊임없는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에 대해 유권자들은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지만 국회가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 대한 관심이 실망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즉, 정치에 대한 높은 기대와 다르게 국회의 실망스러운 현실이 유권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치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은 국회를 더욱 불신하게 되며, 반대로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은 애초에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⁸ 이러한 이유로는 청년 세대에게 가장 친숙하고 어느 정도 청년의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라 추측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에 신뢰를 보다 높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정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정치적 태도 요인(정치효능감, 정치 만족, 여야지지), 사회경제적 배경(연령, 이념, 교육, 소득)과 함께,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 신뢰와 중앙정부·청와대·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에서는 청년 정치인 확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이며,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의 등장을 정치발전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는 정치 관심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년 정치인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회가 여타 정치기관에 비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고질적 불신의 구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치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 차원의 구조적 개혁과 실질적 변화가 요구되며, 국회와 정당이 자정(自淨)하여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신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V. 결론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적인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정치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는 여타 정치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며, 구조적인 불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발전의 일환으로 제도권 내 청년 정치인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다빈, 이재목, 2019). 즉, 기성정치인과는 다를 것이라 기대되는 청년 정치인의 확대는 유권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 신뢰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유권자의 정치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슈 요인, 정치적 태도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적인 정치 신뢰 모델의 경우에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정치효능감, 여당지지, 정치 만족과 연령, 이념,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정치 신뢰에 청년 이슈와 정치적 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치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청년 정치인 인식이 유의미한 설명 변수로 작동하였다. 이는 청년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개혁성과 참신함을 상징하고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청년 정치인의 존재가 단순히 연령 대표성 및 다양성을 넘어 유권자와 정치 사이의 신뢰 간극을 메우는 매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여타 모델들과는 상이한 양상이 도출되었다. 국회 신뢰 모델에서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방향도 부(-)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마저 상쇄할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국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국회 내에 청년 정치인의 비중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유권자들이 그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신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청년 정치인이 확대되어 원내 청년 정치인이 충분하다면, 청년 정치인 확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 신뢰도 변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 내 청년의원들이 다수 진입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국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에 내적 정치효능감과 정치 관심, 정치 만족 그리고 연령, 이념, 소득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내적 효능감과 더불어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치 관심은 낮을수록 국회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높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정희옥 외, 2015; 조인희 외, 2008)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고관여 유권자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반복적으로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높은 관심이 오히려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실정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즉, 정치 관심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국회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뢰가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정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회 신뢰에는 무의미하거나 그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 국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의 깊이가 강하고 고질적이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며, 지금부터라도 유권자들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하여 국회는 끊임없이 자정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고질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파적 대립과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유권자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유권자의 정치 신뢰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정치 신뢰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효과가 제도적 맥락과 깊이 연동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 정치인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회와 정당 차원의 자정 노력과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며, 정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정파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는 청년 정치인을 앞세운다고 해도 신뢰 회복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청년 정치인들 역시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의정 활동 역량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기대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 정치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년 정치인을 단순한 이미지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직후에 실시된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21대 국회 이후에 발생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 유권자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을 밝힌다. 또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에 있어서 간접적이고 단일한 문항을 활용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유권자의 정치 신뢰와의 인과 관계를 정교하게 파악하기에는 일정 수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 정치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이를 둘러싼 유권자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향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7). 정치효능감 및 신뢰감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2(2), 109-127.
- 금현섭, 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류태건. (2012). 정치참여와 정치신뢰 -그 유형의 다양성과 관계성-. *21세기정치학회보*, 22(1), 273-308.
- 박희봉, 신중호, 황윤원. (2013). 정부신뢰의 요인 -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 *한국정책학회보*, 22(1). 465-492.
- 유성진. (2009).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수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의정연구*, 15(1), 119-143.

- 윤혜영, 정태일. (2019). 정치대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세계*, 1(2), 5-26.
- 이곤수, 정한울. (2013). 국회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2), 359-380.
- 이윤주.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사회·정치참여의 필요성 및 방안. *법과 사회*, 61, 29-54.
- 이현우. (2006).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의정연구*, 12(1), 5-30.
- 장선화. (2020). 코로나 19 팬데믹과 위기 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국, 스웨덴 초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4), 275-306.
- 정다빈, 이재목. (2018).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 제고 방안연구: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 7-26.
- 정다빈, 이재목. (2019). 청년세대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적 과제. *동서연구*, 31(1), 33-62.
- 정다빈, 이재목. (2020). 누가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연구방법논총*, 5(3), 1-28.
- 정희옥, 윤종빈, 김진주. (2014).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를 결정하는 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24(3), 415-430.
- 조인희, 정경희, 이호영. (2008). 정치적 태도가 정치적 신뢰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0, 175-207.
- 최준영. (2009).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의정연구*, 15(1), 65-92.
- 최태우. (2017).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1, 259-285.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sell, N. (2005). *Children, youth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Collin, P. (2015). *Young citize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digital society*. London: Palgrave Macmillan.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Dorsey Press.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cLaren, L. (2012). Immigration and trust in politics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1), 163-185.
- Miller, W. E., Miller, A. H., & Schneider, E. J. (1980).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data sourcebook, 1952-197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Uslaner, E. M. (2002).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outh Politicians and Korean Voters' Trust in Politics

Dabin J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voters' perceptions of youth politicians on political trust in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 that voters who view increasing the number of youth politicians as necessary tend to exhibit higher levels of political trust overall. In particula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uch perceptions and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esidential office, and local politic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panding the presence of youth politicians can serve as a meaningful driver for restoring political trust.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was observed on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implying that while young politicians have potential to enhance political trust, their impact may be constrained by the deep-rooted public distrust toward the legislature.

Keywords: Political trust,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Youth Politicians, Voter perception, Political reform

Received May 19, 2025

First Decision Made June 16, 2025

Accepted June 20, 2025

Corresponding Authors

Dabin J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aaabic@naver.com

About the Author

정다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여성, 청년 등 소수자 정치이다.